



보도자료 제 10/418 호
즉시보도용
2010 년 11 월 5 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IMF 상임이사회, 쿼터 및 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개혁을 승인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회는 오늘 이 기금의 쿼터와 지배구조에 대한 주요 개혁을 시작하기 위한 제안들을 승인하여, 이 기금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강화했다.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 역사적인 합의는 이 기금의 65 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며,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가장 큰 규모의 지분 이전입니다”라고 논평했다.

상임이사회는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쿼터를 약 4,768 억 SDR(현재 환율로 미화 약 7,557 억 달러)로 2 배 증가시키고 회원국 사이의 쿼터 지분을 재조정함으로써 14 차 일반 지분 심사를 완료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6 퍼센트를 초과하는 쿼터 지분을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고, 또한 6 퍼센트를 초과하는 쿼터 지분을 과다대표국으로부터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며, 최빈국 회원국의 쿼터 지분과 투표권은 보호된다. 또한 상임이사회는 이사들을 전원 투표로 선출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이 기금의 일상 업무를 감독하는 상임이사회는 총회에 개혁 패키지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고, 187 개 전체 회원국을 대표하는 총회는 쿼터 증가에 대한 제안과 이사 임명 조항을 폐지하는 헌장 개정에 대한 제안을 승인해야 한다. 쿼터 증가 및 헌장 개정에 대한 제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제안은 대부분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회원국들은 2012 년에 연례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쿼터가 2 배로 증가되면 쿼터에 기반을 둔 이 기금의 성격이 유지되고 위기가 발생할 때 회원국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확보될 것입니다. 회원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쿼터 지분을 보다 공정하게 배정하고 상임이사회의 대표성이

강화되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이 기금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논평했다

“이 개혁은 2008 년에 추진된 개혁과 그 이전의 조치들이 통합된 결과로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투표권이 5 퍼센트 포인트가 넘게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덧붙였다. “저희가 합의한 패키지는 균형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회원국들은 기꺼이 타협했고 더 큰 공동 이익을 위한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2 주 전에 G-20 대표들을 결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을 포함하여 각 회원국과 각국의 관련 당국들에게 감사 드리며, 총회가 이러한 개혁안을 승인하기를 기대합니다.”

쿼터 이전은 2009 년 10 월에 열린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이 기금의 정책 자문 기구) 회의에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결정한 쿼터 지분을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과다대표국으로부터 과소대표국으로 최소한 5 퍼센트 이전한다는 목표를 초과할 것이고, 최빈국 회원국들의 투표권은 보호될 것이다. 이 기금의 10 대 회원국은 미국, 일본, “BRICs(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연방)”, 그리고 4 대 유럽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이사회는 쿼터 증가 및 재조정을 연차총회가 열리는 2012 년 10 월까지 발효시킬 것을 요구하는 일정과 2012 년 말로 예정된 차후의 상임이사회 선거 이전에 실행될 상임이사회 개혁을 승인했다.

주요 개혁 요소 요약:

1) 쿼터 및 투표권

- **쿼터 증가**–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인 회원국들의 쿼터는 2008 년의 쿼터 및 발언권 개혁에서 합의된 대로 14 차 일반 쿼터 심사 결과에 따라 2,384 억 SDR 로부터 4,768 억 SDR 로 2 배 증가할 것이다. 쿼터 증가가 발효되는 경우, 이 기금에 추가 대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IMF 와 IMF 회원국 그룹 사이의 재원 보충 협정인 신차입협정(NAB)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롤백을 제공할 것이므로, 상대적 지분이 보존된다.
- **지분 이전**– 2009 년 10 월 IMFC 공동선언문에서 채택된 최소 목표는 과다대표국으로부터 과소대표국으로 6 퍼센트를 초과하는 쿼터가 이전되고, 급성장하는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6 퍼센트를 초과하는 쿼터가 이전됨으로써 초과 달성될 것이다. 또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는

총 투표권은 2008 년 쿼터 및 발언권 개혁에 의해 이전된 투표권을 합하여 5.3 퍼센트에 달할 것이다.

- *최빈국의 투표권 보호*—저소득국가 빈곤 감소 및 성장 신탁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자격이 있고, 1 인당 국민소득이 국제개발협회 한계 소득(쿼터 개혁 계산 기준연도인 2008 년에 미화 1,135 달러, 또는 소국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 배) 미만인 회원국으로 정의되는 최빈국의 투표권은 보호된다.
- *쿼터 결정 공식과 차기 심사*—14 차 일반 쿼터 심사 작업에 기반을 둔 쿼터 결정 공식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는 2013 년 1 월에 완료될 것이다. 15 차 일반 쿼터 심사의 완료 시점은 2014 년 1 월로 약 2 년 앞당겨진다. 쿼터 심사의 목표는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쿼터 지분을 조정하는 동적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분 조정의 결과로 글로벌 경제에서 상대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는 급성장 국가들의 쿼터 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 전체의 지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빈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다.

2) 지배구조—상임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 회원국들은 상임이사회의 규모를 24 명의 이사로 유지하고, 쿼터 개혁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부터 상임이사회의 구성을 8 년마다 심사하기로 결정한다.
- 유럽 선진국들은 늦어도 쿼터 개혁이 발효된 후 첫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상임이사회에서 유럽을 통합하여 대표하는 의석을 2 석 줄인다.
- 상임이사회는 이 기금의 헌장을 개정하는 제안이 발효되면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만으로 구성되고, 이사를 임명하는 조항은 폐지된다(현재는 쿼터가 가장 많은 5 대 회원국이 이사를 임명).
- 다국가 투표권 그룹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대리 이사를 임명할 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총회는 IMF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보통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이다. IMF의 대부분의 권한은 총회에 부여된다. 총회는 특정한 보류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했다. 총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개최된다.

상임이사회는 계속 회기 동안 활동을 하고 IMF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상임이사회는 회원국, 국가군 및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는 총재가 임명(5명) 또는 선출(19명)하는 24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상임이사회는 보통 매주 3-4회 회의를 갖는다. 이 기구는 IMF 경영진 및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에 의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IMF 회원국에게는 세계 경제에 대한 상대적 지위와 다양한 다른 변수에 기준하여 쿼터를 배정한다. 쿼터 출자금은 IMF의 재원의 대부분을 조달한다. 회원국의 쿼터는 IMF에 대한 최대 납입금과 투표권을 결정하고, IMF 금융 사용권과 관계가 있다.

####

Table 1. Illustration of Proposed Quota and Voting Shares 1/
(In percent)

| | Calculated Quota Share | GDP Blend Share 2/ | Quota Shares | | | Voting Shares | | |
|--|---------------------------|-----------------------|---------------|-------------------------|----------|----------------|----------------------------|----------------|
| | | | Pre-Singapore | Post Second Round 3/ | Proposed | Pre- Singapore | Post Second Round 3/ 4/ | Proposed 3/ 4/ |
| Advanced economies | 58.2 | 60.0 | 61.5 | 60.5 | 57.7 | 60.5 | 57.9 | 55.3 |
| Major advanced economies | 42.9 | 48.0 | 46.0 | 45.3 | 43.4 | 45.1 | 43.0 | 41.2 |
| Of which: United States | 17.0 | 21.6 | 17.4 | 17.7 | 17.4 | 17.0 | 16.7 | 16.5 |
| Other advanced economies | 15.3 | 11.9 | 15.5 | 15.1 | 14.3 | 15.4 | 14.9 | 14.1 |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Countries | 41.8 | 40.0 | 38.5 | 39.5 | 42.3 | 39.5 | 42.1 | 44.7 |
| Developing countries | 34.1 | 33.2 | 30.8 | 32.4 | 35.1 | 31.7 | 34.5 | 37.0 |
| Africa | 3.1 | 2.9 | 5.5 | 4.9 | 4.4 | 6.0 | 6.2 | 5.6 |
| Asia 5/ | 17.7 | 17.3 | 10.3 | 12.6 | 16.1 | 10.4 | 12.8 | 16.1 |
| Middle East, Malta & Turkey | 6.2 | 5.2 | 7.6 | 7.2 | 6.7 | 7.6 | 7.3 | 6.8 |
| Western Hemisphere | 7.0 | 8.0 | 7.4 | 7.7 | 7.9 | 7.7 | 8.2 | 8.4 |
| Transition economies | 7.7 | 6.8 | 7.6 | 7.1 | 7.2 | 7.8 | 7.6 | 7.7 |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Memorandum items: | | | | | | | | |
| EU 27 | 31.3 | 27.8 | 32.9 | 31.9 | 30.2 | 32.5 | 30.9 | 29.4 |
| LIcs (IDA thresholds) 6/ | 1.8 | 1.7 | 3.5 | 3.2 | 3.2 | 4.0 | 4.5 | 4.5 |
| Shifts from Post Second Round | | | | | | | | |
| Underrepresented countries (shift in p.p.) | | | | | 6.2 | | | 5.8 |
| Underrepresented EMDCs (shift in p.p.) | | | | | 5.7 | | | 5.4 |
| Dynamic EMDCs (shift in p.p.) 7/ | | | | | 6.0 | | | 5.7 |
| EMDCs (shift in p.p.) | | | | | 2.8 | | | 2.6 |
| Uniform reduction factor 8/ | | | | | 53.9 | | | |

Source: Finance Department.

1/ See the Annex for a description of the allocation mechanism.

2/ GDP blended using 60 percent market and 40 percent PPP exchange rates, compressed using a factor of 0.95.

3/ Includes ad hoc increases for 54 eligible members that are not yet effective; also includes Kosovo and Tuvalu which became members on June 29, 2009 and June 24, 2010, respectively. For the two countries that have not yet consented to, and paid for, their quota increases, 11th Review proposed quotas are used.

4/ Basic votes are calculated using the agreed percentage of total votes, 5.502 percent of total votes (provided there are no fractional votes) as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Enhance Voice and Participation, which has not yet entered into effect.

5/ Including Korea and Singapore.

6/ Eligibility is limited to PRGT-eligible countries with annual per capita income below the prevailing operational IDA cut-off in 2008 (US\$1,135) or below twice IDA's cut-off for countries meeting the definition of a "small country" under the PRGT eligibility criteria. Zimbabwe is included.

7/ Includes all under-represented EMDCs plus other dynamic EMDCs defined as those whose PPP GDP share divided by post second round quota share is greater than 1 and who are not over-represented by more than 25 percent.

8/ Uniform proportional reduction in the gap between GDP blend (see footnote 2) and post-selective quota share.

Table 4. Summary of Voting and Quota Share Shifts

| | From Pre-2008 Reform | From Post Second Round |
|---|-------------------------|---------------------------|
| Shift of voting shares (ppts) | | |
| to under-represented countries | 8.2 | 5.8 |
| to dynamic EMDCs | 8.8 | 5.7 |
| to EMDCs | 5.2 | 2.6 |
| to non-oil EMDCs 1/ | 7.6 | 3.9 |
| Shift of quota shares (ppts) | | |
| to under-represented countries | 8.5 | 6.2 |
| to dynamic EMDCs | 9.0 | 6.0 |
| to EMDCs | 3.8 | 2.8 |
| to non-oil EMDCs 1/ | 6.4 | 4.2 |
| Number of countries that increase quota share | 54 | 61 |
| Advanced Countries | 10 | 8 |
| EMDCs | 44 | 53 |
| Number of countries that increase or maintain quota share | 54 | 107 |
| Advanced Countries | 10 | 8 |
| EMDCs | 44 | 99 |
| Number of countries with nominal quota increases greater than 150% | 40 | 16 |
| Advanced Countries | 6 | 3 |
| EMDCs | 34 | 13 |
| Adjustment coefficient 2/ | 65.8 | 55.8 |

1/ Oil-exporting EMDCs are those that WEO classifies in the functional group "fuel exporters", consisting of 27 countries.

2/ The adjustment coefficient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deviations between actual and calculated quota shares are reduced by the quota adjustment. The pre-Singapore calculations exclude Kosovo and Tuvalu.